

# Healed by Acceptance

She's 9 years old. She's an AIDS orphan.

Now she has been abandoned  
by her community.

심.로.벨.리.포.트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에이즈 예방 포스터



마약 및 에이즈 재활치료원, Pengasih내 남자기숙사

# 에이즈와 마약 통합 관리

백승수 본회 서울특별시회 사업과장

말레이시아에서는 마약 중독자들에 대해 태형 10대, 5-13년의 징역형, 종신형, 사형 등에 처하는 법이 있다. 이런 엄한 법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인구 2천 300만 명 중 20여만 명이 마약 사용자라고 한다.

## 마약주사기 공동 사용이 주요 감염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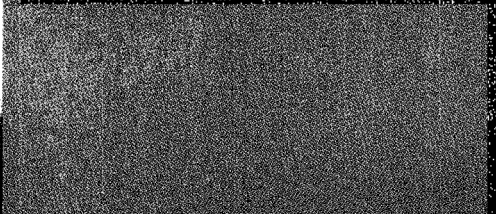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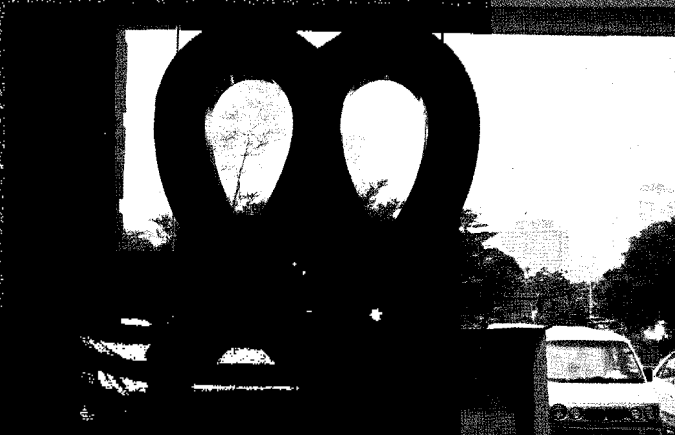
말레이시아는 다수의 말레이시아인과 중국인, 인도인의 다민족 국가로 소수인 중국인이 사회·경제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고 빈부의 격차가 크다. 지리적으로는 마약을 생산·유통·소비하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태국 등과 인접하고 있어 마약 사용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지리적 환경 속에 마약 사용자들이 많고, 이들 중 주사기 공용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하 IDU, Injection Drug User)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1986년부터 에이즈 감염인이 발생한 이래, 1991년부터는 매년 수 천 명의 신규감염인이 발생해(2002년 신규감염인의 수가 6,978명이다.) 2002년 12월 말 현재 말레이시아의 에이즈 감염인 수는 51,256명이다. 전파경로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주 전파경로가 성접촉(97.5%, 2003년 9월말 기준)인 것에 비해 말레이시아의 주 전파경로는 IDU(76.3%)로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20%)보다 월등히 우세하다.

## 마약과 에이즈 통합 치료원 Pengasih

상황이 이러다보니, 말레이시아에서는 에이즈와 마약 문제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 통합하여 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노력 중의 하나가 Pengasih(마약 및 에이즈 재활치료원)이다. Pengasih는 말레이시아어로 '사랑', '사랑스러운 사람'을 의미한다.





Pengasih 식당전경.

쿠알라룸푸르에서 1시간 정도 차로 이동해야 하는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 마치 한적한 시골 별장처럼 보이는 곳이 마약 사용자와 에이즈 감염인·환자를 위한 쉼터이다.

Pengasih에서는 국적, 신분, 종교 등의 경계 없이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 부설 국제치료소와 병동이 있어 말레이시아 사람 외에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태국 등의 마약과 에이즈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머물 수 있고,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동남아 각 국의 의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하여 연수·교육을 받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Pengasih 인에는 곳곳에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용서', '명상' 등의 글들을 통해 이용자들의 삶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갱생과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준비도 시켜보지만, Pengasih를 벗어나 완전한 재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사람보다는 Pengasih 내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 조금은 씁쓸함을 안겨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2001년 처음으로 약물주사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2건 발견되었다. 아직은 성접촉으

로 인한 감염보다는 미미한 숫자이나, 결코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 국내 에이즈사업에도 마약문제 고려해야

우리나라 마약 사범이 10,673명(2002년)에 이르고, 마약의 특성상 중독이 되면 태만, 불결함, 신체 조정력 상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상실 등을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마약사용자들이 결국에는 주사기를 돌려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마약 사용자들이 마약 구입을 위해 성매매까지 나설 수 있다. 결국에는 마약 사용자들이 마약 중독과 더불어 에이즈 감염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잠재해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마약의 중간유통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마약사용자 외에 외국인인 국내에 유입하여 마약의 유통과 더불어 에이즈를 전파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마약과 에이즈 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접근하기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 상담이나 교육, 예방활동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